

광주 기업들 채용 크게 줄인다

광주경총 143곳 조사 ... 지난해보다 33% 감소

“원자재 값 상승 영향 채용에 어려움”

올해 광주지역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이 지난해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지역 주요 기업 143개사를 대상으로 ‘2012년 고용전망 조사’를 한 결과, 올해 지역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 규모가 지난해 대비 3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100인이

상 기업이 34.5%, 100인 미만 기업이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은 올해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묻는 설문에서 ‘채용계획이 있거나 이미 채용’이라고 응답한 곳은 전체의 52%로, 지난해 64%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또 ‘미결정·유동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7%, ‘채용계획 없음’은 11%

로 나타나 전년보다 각각 11%와 1% 증가했다.

신규 인력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일 계획인 기업은 그 이유로 ‘인건비 압박’(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투자규모 축소’(20%), ‘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18%), ‘내외 여건 불안’(16%), ‘자동화’(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결원 충원’(47%), ‘신규투자 증가’

(28%), ‘우수인력 확보’(15%), ‘경기 활성화 대비’(8%), ‘사회적 책임’(2%)을 위해 신규채용 한다고 응답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유럽의 재정 위기와 중동사태 등 국내외 경제의 불안 확대와 이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영향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키봇2’ 글로벌 시장 공략 KT는 25~26일(현지시간) 이틀동안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교육 컨퍼런스인 ‘Learning Without Frontiers 2012(LWF 2012)’에서 스마트 로봇 ‘키봇2’를 선보이며 글로벌 에듀테인먼트 시장 공략에 나섰다. <KT 제공>

일자리 나누기 ... 자동차업계 ‘전전공공’

신규채용 원가상승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전자업 큰 영향 없고 건설업계 적용 어려워

정부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비롯한 잡세어링(일자리 나누기)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기업들의 반응이 업종별로 갈리고 있다.

◇자동차업계 “올상”=연장근로가 많은 자동차업계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완성차업계 근로시간 실태에 따르면 현대차 일부 공장 근무자는 휴일 특근을 포함해 총 근로시간이 64시간 5분에 달했고 업계 평균도

55시간이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한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이들 기업은 현재보다 근로 시간을 크게 줄여야만 한다.

자동차업계는 휴일 생산인원을 별도로 채용하면 생산원가가 상승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존 노동자들의 휴일 특근이 줄어들어 임금이 줄면 노사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류업계는 근로시간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업종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에 좌불안석이다.

◇건설·중공업계 “적용 어려울 것”=건설업계는 건설업의 특수성을 들어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공사 현장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건설사 현장 근로자 대부분은 주말을 포함해 이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건설업 현장 근로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 직원이고 관리직만 본사 소속이어서 ‘잡 세어링’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현장 관리직은 건설 작업과 안전 관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공사 진행의 흐름을 꿰고 있어야 해 주말에 잠깐 비숙련자가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조선·중공업계는 주문과 재고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크게 달라 근로시간 단축만큼 고용을 늘리는 ‘잡 세어링’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유통업계도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마트의 경우 2007년 매장 캐시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춰놓은 상태다. /*연합뉴스

포스코·삼성전자 ‘글로벌 100대 기업’

캐나다 경제전문지 선정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캐나다 경제전문지 코퍼레이트 나이트(Corporate Knights)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

서 각각 30위와 73위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세계 철강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포스코는 2010년에는 93위에 랭크됐었다.

삼성전자는 2010년 91위를 차지하며 처음 순위에 오른 이후 3년 연속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특히 올해에는 작년보다 무려 20계단이나 뛰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100대 기업 평가항목은 다양성, 안전효율성,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혁신역량, 임직원 채용·고용유지, 에너지·온실가스·수자원 효율성 제고 등 11개 주요 성과 지표로 구성된다.

2008년부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IT 슈퍼섹터 리더로도 선정된 바 있다. 또 국내 처음으로 전자기업 CSR 협의체인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서울 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한편 나이트는 2005년부터 전 세계 3500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드워드 구(오른쪽) 미국 LA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5일 전남도와 광양만권 투자협약을 맺었다.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절반 “경영 어렵다”

중기 지역본부 83곳 조사

삼성전자·기아자동차 등 지역 대기업의 협력업체 절반은 경영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83개사를 대상으로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48.2%가 지난해 4·4분기 ‘경영

상태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2·4분기 39.3%, 3·4분기 44.5%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경영상태가 어려운 이유를 ‘대기업 납품물량 감소’(56.8%),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구인난’(45.5%), ‘일방적 단가인하 요구’(25.0%)를 꼽았다.

또 어렵다고 응답한 업체의 경영상

태를 보면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가 34.3%, 20% 미만 감소한 업체가 44.7%로 모두 78%의 업체가 매출액이 감소했다.

협력업체들은 이처럼 어려운 경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62.5%), ‘거래처 다변화’(47.5%), ‘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 감축’(16.3%)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경영으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67.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지역 내 대기업 유치와 지원 확대’(53.2%), ‘지역 제품 사주기운동 전개’(16.9%), ‘자동차·가전 중심의 지역산업 다변화’(13.0%) 등으로 나타났다.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지난해 하반기들어 국제적 금융위기로 대기업 제품의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협력사들이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국 LA상의 구 회장 “광양만권 투자 협력”

전남도 동부출장소는 지난 25일 미국 LA상공회의소 에드워드 구 회장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방문에 미국 기업의 광양만권에 투자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에드워드 구 회장은 이날 광양항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방문해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투자 이점 등을 꼼꼼히 챙겼다. 또

2012 여수 세계박람회, 2013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에드워드 구 회장은 미국 한인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경제인이다.

전남도 동부출장소는 구 회장의 방문으로 광양만권의 홍보와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정욱기자 pyj4079@

▲ 코스피지수	1957.18 (+4.95)
▲ 코스닥지수	516.45 (+4.98)
▼ 금리 (국고채 3년)	3.40% (-0.02)
▼ 원·달러 환율	1122.00원 (-3.9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ProMotion

11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ProMotion

2012. 1. 31 (화) 오전 11시 전주코아리베라호텔

호남광역경제권 하이브리드카 프로젝트 수행 완성차 기업의 내수판매 증대 및 전국적으로 호남권 개발 제품 인식도 증대

초대의 말씀

오는 1월 31일에 양산된 전기자동차 프로모션 행사를 통하여 우리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서 아낌하게 생산한 전기자동차를 보시고, 구하시고, 공유하시어 우리나라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장을 전국적으로 널리 확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5000개인 전국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내년까지 3,000개 이상으로 확충하고, 전기자동차의 통행료 할인,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까지 제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전기자동차를 타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구매 프로모션을 통해 전기자동차를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호남선도산업지원단장

시간	내용	참석자 전원
10:30~11:00	등록	참석자 전원
11:00~11:10	환영사	1. 호남선도산업지원단장 2. 전주시장 3. 전라북도전력산업국장
11:10~11:30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추진방향	환경부 교통환경과
11:30~11:50	전기자동차 활용 방안 - 전기자동차 활용에 대한 지자체 입장	영광군 투자유치과
11:50~12:05	AD모터스 전기자동차 소개 - 기업/제품 소개 - 국내외 판매 현황 - 국내외 EV/활용 우수사례 - 구매 인센티브 소개	AD모터스
12:05~12:20	지앤디원텍 전기자동차 소개 - 기업/제품 소개 - 향후 생산 및 판매 계획	지앤디원텍
12:20~12:35	시그넷시스템 EV충전 제품 소개 - 기업/제품 소개 - 국내외 판매 현황 - 자사 제품 적용 사례	시그넷시스템
12:35~13:30	중식	참석자 전원
13:30~16:00	전기자동차 시승 - 시승 전 운행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 - AD모터스 Change New Model 시승 (AD모터스 관계자 조수석 탑승)	참석자 전원 (시승행사장)
16:00~	폐회	